

# K리그 25일 개막...광주FC '도장깨기' 나선다



광주FC의 위대한 도전이 시작된다.

광주가 25일 오후 4시 30분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수원 삼성을 상대로 하나원큐 K리그1 2023 개막전을 치른다. 1년 만에 돌아온 1부리그의 복귀전이기도 하다.

광주는 지난 시즌 환상적인 경기력과 끈끈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최다승-최다승점(25승-86점), 역대 최단 기간 우승(-4경기), 홈 최다연승(10연승) 등 K리그2의 각종 기록들을 갈아치우면서 '챔피언'의 자적으로 1부 승격을 이뤘다.

또 이정호 감독, '주장' 안영규, '공격의 핵' 엄지성이 나란히 감독상·MVP·영플레이어상을 수상했고 베스트11 6자리까지 차지하는 등 지난해 시상식서 9관왕에 등극했다.

거침 없는 2022시즌을 보냈던 광주는 더 빠르고 강한 무대에서 '도장깨기'에 나선다.

광주는 태국과 제주로 이어진 동계 전지훈련 기간 기초 체력과 공격력 강화에 애를 썼다. K리그1에 맞는 맞춤 전술도 준비해 올 시즌 '다크호스'를 자처했다.

이정호 감독은 "지난 시즌 우승의 영광을 잊고 광주만의 축구를 펼치는 게 내 목표다. 강한 상대가 있다고 해서 수비만 할 생각은 없다. 차라리 맞붙을 놓고 싸워야 저도 후회가 없을 것 같다. 상대가 누구든 몰려서야겠다"며 "많은 사람들이 광주가 강등 1순위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광주는 잔류가 목표가 아니다. 그 이상의 성적을 보여줄 것"이라고 광주의 1부 복귀전이자 개인으로서는 1부 데뷔전을 기다리고 있다.

광주는 지난 시즌 우승을 이룬 멤버들 그대로 끈끈한 조직력으로 승점 사냥에 나선다.

안영규, 이순민, 엄지성, 김경민, 정호연, 박한빈 등 우승을 합작한 이들과 함께 야사니, 토마스, 티모를 영입해 기존 멤버인 산드로와 아론을 포함해

수원 삼성 상대 1부리그 복귀전

엄지성·이순민·박한빈 등 멤버에

강력한 '외인 5인방' 구축

이정호 감독 "광주만의 축구 펼쳐"

안영규 주장 "첫 경기 승리로 장식"

강력한 '외인 5인방'을 구축했다.

또 신창무, 정지훈, 이강현 등 알짜배기 자원이 합류하면서 공수 전반에 날카로움이 더해졌다.

광주의 첫 상대인 수원은 지난 시즌 10위를 기록, 승강 플레이오프 끝에 1부리그 잔류에 성공했지만 저력을 무시할 수 없는 전통의 강호다.

역대 전적에서도 3승 6무 10패로 수원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올 시즌 수원은 김보경, 물리치, 아코스티 등을 영입해 공격에 창의성과 무게감이 더해졌다.

주장 안영규는 "다시 돌아온 1부리그 무대, 그리고 강팀과의 맞대결에서 우리가 약세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무명은 열어봐야 한다. 선수단 모두 지난 시즌 간절히 원하던 이뤄낼 수 있다는 소중한 경험을 겪은 만큼 동기부여가 남다르다"며 "열심히 노력한 만큼 첫 시작을 승리로 장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는 기다렸던 순간을 앞두고 23일 광주월드컵 경기장에서 마지막 점검 시간을 가졌다. 첫 경기 시간에 맞춰 오후 4시 훈련을 시작한 선수들은 밝은 표정으로 마지막 훈련을 전개했다.

엄지성은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데 경기장에서 몸 풀 때부터 긴장이 될 것 같다. 개막전이 다가와서 텐션도 올라오고 몸상태도 좋다.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 얼굴 좋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



광주FC 선수들과 이정호 감독이 23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2023 시즌 개막에 앞서 마지막 전술 점검 시간을 가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며 개막을 앞둔 마음을 이야기했다.

또 "경기장에서 우리가 증명하면 된다. 경기장에서 보여드리는 게, 결과로 증명하는 게 우리의 몫이다"며 "상대 경기 분석도 많이 했지만 우리가 준비

한 대로만 경기장에서 보여주면 충분히 모든 팀을 상대로 경쟁력 있는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어느 팀이든 공격적으로 나갈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공격지역에서 공을 잡았을 때 슈팅 크로스 볼

과 공격적인 부분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좋은 경기, 재미있는 경기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2023 KPGA 코리안투어, 대회 수·상금 역대 최대 규모

25개 대회에 총 상금 250억원

4월 13일 프로모오피스 개막

2023시즌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가 대회 수와 상금 모두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23일 KPGA에 따르면 이번 시즌 코리안투어는 4월 13일부터 강원도 춘천 라비에벨 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DB손해보험 프로모오피스를 시작으로 총 25개 대회, 총상금 250억원 이상 규모로 진행된다.

코리안투어의 기존 최대 대회 수와 총상금 기록은 지난해의 21개 대회와 총상금 203억원이었다. 올해는 아직 일부 대회의 상금이 정해지지 않아 총상금 액수도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250억원 돌파가 유력하다는 게 KPGA의 설명이다.

현재까지 18개 대회의 상금 규모가 약 196억원이고, 7개 대회가 상금을 협의 중이다.

5월 열리는 우리금융 챔피언십 총상금이 1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액돼 제네시스 챔피언십, KPGA 선수권대회와 더불어 코리안투어 단독 주관 대회로는 최대 상금 대회가 됐다.

올 시즌엔 4월 20일부터 시즌 두 번째 대회로 예정된 '골프존 오픈 in 제주'를 비롯해 5개 대회가 신설됐다.

해외투어와 공동 주관하는 대회는 지난해 2개에서 올해 5개로 증가했다.

약 10년 만에 DP월드투어와 공동 주관으로 대회가 열리는 것이 큰 특징이다.

코리안투어와 DP월드투어가 공동 주관하는 '코리아 챔피언십'은 4월 27일부터 나흘간 인천 연수구의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에서 개최된다.

9월 신한동해오피스는 코리안투어, 일본프로골프투어(JGTO), 아시아투어 공동 주관으로 펼쳐진다.

6월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은 JGTO와 공동 주관이며, 5월 GS칼텍스 매경오픈과 6월 코오롱 한국오픈은 아시아투어 공동 주관으로 열린다.

이 중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은 일본 지바에서 대회가 열린다.

KPGA는 코리안투어 선수와 유소년 선수가 함께 짝을 이뤄 경기하는 '타임플레이오 워너스 매치 플레이'와 프로골프 구단 활성화를 위한 구단 리그를 올해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퍼팅은 신중하게 전인지가 23일 태국 파타야의 시암컨트리클럽에서 개막한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혼다 LPGA 티일랜드 1라운드 1번홀에서 퍼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PGA 16+LPGA 16명 참가 '남녀 혼성 골프 대회' 열린다

12월 그랜트 손튼 인비테이셔널

오는 12월에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선수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선수가 함께 경기하는 남녀 혼성 골프 대회가 열린다.

PGA투어와 LPGA투어는 오는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티부론 골프클럽에서 남녀 혼성 이벤트 대회인 그랜트 손튼 인비테이셔널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PGA투어와 LPGA투어 선수가 각 16명씩, 32명이 출전해 총상금 400만 달러를 다툰다.

경기 방식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으나 작년까지

팀 대회 이벤트 대회로 열렸던 QBE 숏아웃을 남녀 혼성팀 경기 방식으로 치르는 방안이 유력하다.

QBE 숏아웃은 선수 2명이 짝을 이뤄 사흘 동안 베테볼 방식 스트로크 플레이로 순위를 가렸다.

원래는 남녀 대회였지만 최근 렉시 토포스, 넬리 코다(이상 미국) 등 LPGA투어 선수가 출전하는 사례가 잦아지면서 아예 혼성팀 대회로 바꾸자는 구상이 나왔고 현실화한 셈이다.

PGA투어와 LPGA투어 선수가 함께 팀을 이뤄 치르는 대회는 1999년까지 열린 JC 페니 클래식식이 있었다.

/연합뉴스

## "이러다 EPL 팀 다 떨어지는 거 아냐?"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잉글랜드 4개 클럽 1무 3패

유럽 축구 왕좌를 놓고 각 나라의 강호들이 모여 경쟁하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토너먼트 첫 라운드인 16강 1차전에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팀들이 1승도 거두지 못하는 부진을 보였다.

23일까지 이어진 2022-2023 UCL 16강 1차전 결과 잉글랜드 4개 클럽(리버풀·토트넘·첼시·맨체스터 시티)은 1무 3패에 그쳤다.

EPL에선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 출전한 4개 팀이 모두 16강에 진입했는데, 1차전에선 이날 맨시티가 라이프치히(독일)와 1-1로 비긴 것이 유일한 무승부 기록이다.

리버풀과 토트넘, 첼시는 나란히 패배를 떠안았다.

특히 리버풀은 22일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와의 홈 1차전에서 두 골을 먼저 넣은 이후 5골을 내리 내주는 대역전패를 당했다.

손흥민이 뛰는 토트넘은 AC 밀란(이탈리아)에, 첼시는 도르트문트(독일)에 각각 0-1로 졌다.

맨시티는 유일하게 비긴 것만 있었지만 핵심 골잡이 인영링 홀란의 득점포 침묵 속에 라이프치히에 후

반 동점 골을 내줬다.

74%의 점유율 속에 슈팅도 상대의 두 배인 12개를 퍼부었으나 유효 슈팅은 도리어 하나 적은 3개에 그치는 등 내용으로도 다소 아쉬웠을 무승부다.

현재 세계 축구 최고의 리그로 꼽히는 EPL은 최근 UCL에서도 강세를 보여왔다.

지난 5시즌 중 4개 시즌 결승전에 EPL 팀이 포함됐고, 특히 2018-2019시즌(리버풀-토트넘)과 2020-2021시즌(첼시-맨시티)엔 EPL 팀의 결승 맞대결이 펼쳐졌다.

레알 마드리드가 우승을 차지한 지난 시즌엔 잉글랜드는 16강에 가장 많은 4개 팀이 들어갔고, 8강(3개)과 준결승(2개) 때는 스페인과 더불어 최다 진출팀을 냈다.

맨시티와 토트넘, 첼시는 상대 팀과 득점 차이가 없거나 크지 않은 가운데 홈에서 2차전을 앞두고 있어 8강 진출 희망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리버풀은 큰 격차로 밀리는 데다 2차전을 원정으로 치러야 해 부담이 더욱 커졌다.

EPL 팀들의 부진 속에 이번 시즌 16강 1차전에서 가장 돋보이는 국가는 이탈리아다.

세리에A 팀들은 김민재가 속한 나폴리를 필두로 AC 밀란과 인터 밀란까지 3개 팀이 모두 1차전 승리를 챙기는 강세를 보였다.

/연합뉴스